

일부 중학생의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의 관계

오 성 천 · *장 재 선*

대원대학교 제약식품계열,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Relationship of Food-Related Lifestyle Type and Fast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Sung-Cheon Oh and *Jae-Seon Jang*

Dept. of Food & Pharmacy, Daewon College, Jecheon 390-702,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461-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t food consumption behaviors and food-related lifestyle types. Data was collected from 268 middle students in the Incheon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factor analysis extracted five comprising food-related lifestyle, which we named health seeking (factor 1), taste seeking (factor 2), easy seeking (factor 3), popularity seeking (factor 4) and safety seeking (factor 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the food-related lifestyle showed that the average consumption was more than 2.95 and, 0.792 in Cronbach alpha coeffici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factor for the selection of fast food according to taste seeking and, popularity seeking types ($p<0.05$). Also, the easy seeking and safety seeking lifestyle typ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reason the choosing criteria of fast food ($p<0.05$). Especially, the nutrition problem was of the highest importance for the health and safety seeking but an advertisement effect trend appealed more to the taste seeking, easy seeking and popularity seeking lifesty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st food of intake frequency according to health seeking, easy seeking, popularity seeking and safety seeking types ($p<0.05$). A significant positive result of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p<0.05$) was shown for the health seeking and safety seeking types. A significant positive result of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p<0.05$) was shown for the popularity seeking and safety seeking types.

Key words: fast food, consumption behavior, food-related lifestyle,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서 론

청소년은 심신의 발육을 위해 열량과 영양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이나 영양의 불균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양과잉 또는 영양부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올바른 식행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므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Kim & Lee 2006).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의 1, 2위가 피자, 햄버거이고, 청소년들의 외식소비 중 패스트푸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Jo & Kim 2005).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은 햄버거, 치킨, 피자 등으로 육류나 기름진 음식이 많아 편중된 영양 섭취 현상을 유발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의 부족, 고열량, 고지방, 고염식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져 건강한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열량 비

* Corresponding author: Jae-Seon Jang,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461-701, Korea. Tel: +82-31-750-4767, Fax: +82-31-750-5974, E-mail: jangjs@gachon.ac.kr

율이 높고, 포화지방산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며, 과일, 채소 및 전곡 음식이 부족하므로 Na 함량을 저하시키거나, 대체물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Lee JS 2007).

햄버거 세트의 나트륨함량은 675~1,693 mg으로 여자 성인 20~29세의 1일 열량권장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영양소기준치 3,500 mg과 비교해 19~48%를 차지하고, 또한 한 특정업체의 햄버거의 포화지방산이 기준치의 140%, 콜레스테롤이 92%를 함유하고, 피자의 경우 포화지방산 함량이 57%, 콜레스테롤 함량이 24%로 보고하고 있다(Kim 등 2007). 패스트푸드의 조리법도 발암물질인 Heterocyclic amines(HCAs)의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아크릴아마이드인 경우 국내 시판 중인 프렌치프라이에서 300~1,600 ppb, 감자칩은 900~1,700 ppb가 검출되어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Kim SH 2003).

한편,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는 식생활 양식도 변화시키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식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식습관 및 식품 소비 등 식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YG 2007).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와인선택 속성 연구(Lim GM 2006),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쌀 가공식품 소비태도 분석 연구(Lee HW 2010). 또한 주부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고추장 소비형태 연구(Kim & Kim 200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전문점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Woon YE 2010)가 있다. 또한 Kim & Kwon(2007)은 HMR의 선택 속성 요인과 식생활차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며, Kim & Kim(2010)은 중국 소비자의 한식 소비행동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간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im JY(2008)은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와인선택 속성 연구에서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와인선택 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Jung & Yoon(2007)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소비성향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들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식품표시 관련 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패스트푸드 이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이용 실태조사로 패스트푸드 소비에 미치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No & Shin 2000; Yoo 등 2000; Kim 등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의 소비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소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2014년 11~12월에 인천지역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균등하게 총 300부 무작위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28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21부를 제외하고, 총 268부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Seung HS 2006; Won YE 2010)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자기체중의 만족도와 인식도, 용돈, BMI 등 7개의 항목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은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를 토대로 하여 25개의 측정문항을 추출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범주 중 한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패스트푸드 소비형태는 패스트푸드 선택의 영향 요인, 패스트푸드의 선택 기준, 섭취 횟수, 섭취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통계처리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version 21)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의 관계에 대해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사후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패스트푸드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향추구성(맛, 칼로리, 영양)과 외향추구성(가격, 서비스, 브랜드 인식)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p < 0.05$ 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의 분석결과 조사는 중학생 전체 268명 중 성별로는 남자 137명(51.1%),

여자 131명(48.9%)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83명(31.0%), 2학년 103명(38.4%), 3학년 82명(30.6%)으로 나타났다. BMI는 저체중, 정상군, 과체중이 각각 94명(35.1%), 138명(51.5%), 36명(13.4%)으로 정상체중이 가장 많은 반면, 저체중 학생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자기 체중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만족한다 115명(42.9%), 만족하지 않다 153명(57.1%)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체중의 생각은 적당하다 106명(39.6%), 살찐 편 93명(34.7%), 마른 편 36명(13.4%) 순으로 나타나 BMI는 저체중이 많았으나, 학생들은 자신이 살찐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한 달 용돈은 5만 원 이하 217명(81.0%), 5만 원에서 10만 원 46명(17.2%), 10만 원 이상 5명(1.8%)으로 나타나, 중학생인 경우 5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신뢰성 및 타당성

Table 2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각 문항별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 결과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대체적으로 평균 2.9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 ‘나는 식품을 살 때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한다’는 3.75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 한다’는 3.38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survey group

Spec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37	51.1
	Female	131	48.9
BMI	Low weight	94	35.1
	Normal	138	51.5
	Over weight	36	13.4
School year	Year 1	83	31.0
	Year 2	103	38.4
	Year 3	82	30.6
Weight satisfaction	Yes	115	42.9
	No	153	57.1
His physical awareness	Very dry side	12	4.5
	Dry side	36	13.4
	Fitness	106	39.6
	Fat side	93	34.7
	Very fat side	21	7.8
One month allowance	Less than fifty thousand won	217	81.0
	Fifty thousand won~ one hundred thousand won	46	17.2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won	5	1.8

프스타일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792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건강추구는 0.827, 미각추구 0.695, 편의추구 0.621, 유행추구 0.779, 안전추구 0.819로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았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탐색적 분석인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통상적인 경우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 0.8-0.9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796으로 나타났는데, Oh & Jang(2014)의 탄산음료 소비형태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800으로 조사되었고, Choi 등(2013)의 건강기능성 음료 구매 특성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791로, Moon & Cho(2012)의 녹차 소비형태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평균 0.780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상관행렬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반영상관행렬인 KMO 값은 0.791로 1에 근접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개별 표본수의 적합성 결과가 타당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2,929.459로 나타나 표본 변수 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할 만큼 적절한 수준에 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각 문항들이 총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을 건강추구, 요인 2를 미각추구, 요인 3을 편의추구, 요인 4를 유행추구, 요인 5를 안전추구라 명명하는데 설명된 총 분산은 60.166%로 나타났다.

Oh & Jang(2014)의 탄산음료 소비형태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로 구분하였고, Moon & Cho(2012)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경제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로 구분하였고, Seung HS(2006)은 미각추구, 건강추구, 편의추구, 안전추구, 경제성추구로 5개로 구분하였으며, Lim GM(2006)은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안전성추구, 충동구매, 알뜰구매, 유행분위기추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Kim 등(2007)은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 미각추구, 유행추구, 안전성추구, 분위기추구로 구분하여 요인분석결과, 누적 설명력이 53.87%가 나타났으며, Oh & Kim(2012)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커피소비행동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 외식추구, 맛추구, 계획구매추구, 편리성추구로 구분하여 얻은 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 Lim & Yoon(2006)의 연구에서 주부의 식생활양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으로 구분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results in the food-related lifestyle

Factor name	Factor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Item removal Cronbach' α	Cronbach' α coefficient
Health seeking type	Go eat a piece of food considered healthy.	2.69	0.99	0.788	0.827
	The consideration of dietary obesity.	2.75	1.08	0.786	
	Consider the nutrition you eat.	2.85	1.04	0.775	
	Try not to eat instant food.	2.95	1.06	0.793	
	Often use natural foods, health foods, organic foods	3.10	1.00	0.780	
Taste seeking type	Look around the house and eat delicious.	2.69	1.07	0.771	0.695
	Wanted to taste a variety of changing your diet each side.	2.69	1.00	0.775	
	Tend to prioritize taste than nutrition in food choices.	3.36	0.96	0.793	
	The piece does not skimp on the diet compared to the other sectors.	2.90	1.07	0.779	
	Tend to feel better in the taste difference.	3.34	1.00	0.779	
Easy seeking type	The purchase is often the department stores, super cooked food.	2.58	1.07	0.792	0.621
	The favorite part of the meal as meal preparation and time spent.	2.62	0.95	0.788	
	When you are busy and often resolve with meals such as bread, milk.	3.11	1.13	0.791	
	Relatively busy to eat out often.	2.24	1.04	0.784	
	If you tend to eat alone in the house a lot of snacks.	3.18	1.10	0.789	
Popularity seeking type	I like to see a new food to eat.	3.38	1.06	0.780	0.779
	Even the first time you see delicious looking food purchases.	2.99	1.09	0.789	
	The acceptance of fast food and fashion pieces.	2.92	0.97	0.778	
	For fast and try to eat around the food.	2.93	0.98	0.776	
	The home side who knows what delicious food and trendy.	2.57	0.99	0.775	
Safety seeking type	Always check the validity when buying food.	3.75	1.14	0.785	0.819
	Check the ingredients of the content when they buy food.	2.96	1.12	0.784	
	Make sure you buy a food additive food.	2.97	1.11	0.782	
	Do not buy the company does not know the product well.	2.93	1.08	0.782	
	I prefer a product that is clearly separated uses.	3.38	0.93	0.782	

Total Reliability=0.792, KMO=0.792, Bartlett sphericity test=2929.459, p value=0.000, The total variance=60.166%

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패스트푸드 소비형태 차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 선택 영향 요인은 미각추구, 유행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구체적으로 패스트푸드 선택에서 미각추구 성향은 친구들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추구 성향은 인터넷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선택 기준에서는 편의추구, 안전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5$), 특히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성향은 영양문제를,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성향은 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섭취 횟수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 성향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즉, 패스트푸드의 섭취 횟수가 한 달에 1~2회인 경우,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높은

반면, 매일인 경우는 편리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섭취 경우는 편의 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05$) 특히 친구 만날 때와 식사대용에서는 편의추구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패스트푸드의 소비 요인인 맛, 칼로리, 영양을 고려한 내향추구성과 가격, 서비스,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외향추구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패스트푸드의 소비형태 요인 중 내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

Table 3. Difference of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pattern according to food related lifestyle

		Health seeking	Taste seeking	Easy seeking	Popularity seeking	Safety seeking
Influence factor for selection	Mass communication	2.91±0.76	2.86±0.63	2.64±0.61	2.93±0.61	3.27±0.76
	Internet	2.96±0.91	3.05±0.75	2.94±0.58	3.12±0.80	3.40±0.78
	Family	2.86±0.80	2.86±0.75	2.61±0.71	2.71±0.91	3.28±0.89
	Friend	2.78±0.79	3.08±0.70	2.65±0.67	3.09±0.75	3.08±0.85
	Other	3.18±0.88	2.58±0.53	2.65±0.59	2.56±0.75	3.21±0.77
	<i>F</i> ratio	1.087	2.984*	1.396	3.219*	0.945
Selection criteria of fast food	Taste	2.79±0.81	3.00±0.70	2.81±0.63	3.01±0.74	3.11±0.81
	Nutrition	3.72±0.81	2.68±0.57	1.92±0.65	2.36±0.71	3.96±0.99
	Amount	3.23±0.73	2.51±0.78	2.43±0.71	2.73±0.82	3.43±0.84
	Price	3.02±0.68	2.84±0.50	2.51±0.48	2.82±0.74	3.32±0.81
	Friend	3.00±0.52	2.86±0.63	2.32±0.76	2.80±0.55	3.63±0.67
	Advertisement	3.00±0.00	3.80±0.00	3.80±0.00	4.00±0.00	2.40±0.00
	Other	3.20±0.28	2.20±0.00	2.60±0.56a	2.60±0.56	4.20±0.00
	<i>F</i> ratio	2.031	1.932	4.387*	1.590	2.702*
Intake frequency	Every day	2.03±1.00	2.73±1.09	3.03±0.68	2.87±0.72	3.10±0.69
	4~5 times a week	2.48±0.78	3.03±0.74	2.90±0.56	3.38±0.92	2.99±0.90
	2~3 times a week	2.69±0.68	3.02±0.59	2.91±0.50	3.04±0.61	2.94±0.75
	1 times a week	3.05±0.75	2.79±0.70	2.59±0.65	3.01±0.75	3.30±0.81
	1~2 times a month	3.05±0.77 ^{ab}	2.80±0.70	2.74±0.66	2.97±0.75a	3.37±0.83
	<i>F</i> ratio	6.124*	1.932	3.306*	3.329*	3.261*
Intake case	Birthday and party	3.10±0.67	2.78±0.67	2.55±0.62	2.80±0.70	3.39±0.76
	When you become a friend	2.77±0.92	3.12±0.74	2.93±0.66	3.10±0.79	3.24±0.86
	When hungry after studying	2.75±0.69	3.05±0.64	2.68±0.67	2.92±0.79	2.94±0.73
	Instead of meal	2.82±0.69	2.86±0.58	2.99±0.69	2.99±0.75	3.04±0.80
	Other	2.82±0.96	2.92±0.79	2.81±0.75	2.95±0.74	3.32±0.87
	<i>F</i> ratio	1.853	2.719	5.622*	1.713	2.444

Value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Table 4. In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and food-related lifestyle factors

	B	Beta	<i>t</i>	<i>p</i> value
Constant	4.917		8.169	0.000
Health seeking type	0.487	0.257	4.081	0.000
Taste seeking type	0.146	0.066	0.963	0.336
Easy seeking type	-0.095	-0.041	-0.625	0.532
Popularity seeking type	-0.018	-0.009	-0.123	0.902
Safety seeking type	0.430	0.234	3.762	0.000

The dependent variable = In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R^2=0.186, F=11.958$

* $p<0.05$

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패스트푸드소비형태의 요인 중 내향추구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R^2=0.186, F=11.958$ 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건강추구

($\beta=0.487, p<0.05$)와 안전추구($\beta=0.234, p<0.05$)는 패스트푸드의 소비의 내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추구($\beta=-0.041, p<0.05$)와 유행추구($\beta=-0.009, p<0.05$)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Table 5. Ex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and food-related lifestyle factors

	B	Beta	t	p value
Constant	5.520		7.665	0.000
Health seeking type	0.058	0.027	0.406	0.685
Taste seeking type	0.124	0.050	0.685	0.494
Easy seeking type	-0.174	-0.067	-0.963	0.336
Popularity seeking type	0.422	0.184	2.415	0.016
Safety seeking type	0.380	0.183	2.776	0.006

The dependent variable = Ex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R^2=0.084, F=4.796$

* $p<0.05$

타났다. 즉, 패스트푸드의 소비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와 편의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소비형태가 나타낸 반면, 건강추구인 경우는 패스트푸드의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패스트푸드의 소비 요인 중 외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패스트푸드 소비형태 요인 중 외향추구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84, F=4.796$ 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 ($\beta=0.184, p<0.05$)와 안전추구 ($\beta=0.183, p<0.05$)가 패스트푸드 소비형태 중 외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가 높을수록 패스트푸드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 Jang(2014)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탄산음료의 소비형태에 대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내향성추구인 경우, 건강과 편의추구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미각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외향성추구인 경우는 미각과 안전추구가 높게 나타났다. Choi 등(2013)은 건강기능성 음료 구매특성에 대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미각추구와 건강추구가 높을수록 내향추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Oh & Kim(2012)의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커피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건강추구, 외식추구, 맛추구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식품은 다르나, 본 연구 대상인 중학생인 경우 패스트푸드 소비형태 중 건강추구와 안전추구가 내향성 요인으로 작용하며, 유행추구가 외향성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의 소

비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선택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결과, 성별로는 남자 137명(51.1%), 여자 131명(48.9%)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83명(31.0%), 2학년 103명(38.4%), 3학년 82명(30.6%)으로 나타났다. BMI는 저체중, 정상군, 과체중이 각각 94명(35.1%), 138명(51.5%), 36명(13.4%)으로 정상체중이 가장 많은 반면, 저체중 학생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 체중의 생각은 적당하다 106명(39.6%), 살찐 편 93명(34.7%), 마른 편 36명(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용돈은 5만 원 이하 217명(81.0%), 5만 원에서 10만 원 46명(17.2%), 10만 원 이상 5명(1.8%)으로 나타나 중학생인 경우 5만 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항별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중 ‘나는 식품을 살 때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이 3.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792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다.

3.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에 따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선택 영향 요인은 미각추구, 유행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패스트푸드 선택 기준에서는 편의추구, 안전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특히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성향은 영양문제를,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성향은 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섭취 횟수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 서향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즉, 패스트푸드의 섭취 횟수가 한 달에 1~2회인 경우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높은 반면, 매일인 경우는 편의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먹는 경우는 편의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5$), 특히 친구를 만날 때와 식사대용에서 편의추구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패스트푸드 소비형태의 요인 중 내향추구(맛, 칼로리, 영양)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R^2=0.186$, $F=11.958$ 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건강추구($\beta=0.487$, $p<0.05$)와 안전추구($\beta=0.234$, $p<0.05$)는 패스트푸드의 소비의 내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추구($\beta=-0.041$, $p<0.05$)와 유행추구($\beta=-0.009$, $p<0.05$)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패스트푸드 소비형태 요인 중 외향추구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84$, $F=4.796$ 으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beta=0.184$, $p<0.05$)와 안전추구($\beta=0.183$, $p<0.05$)가 패스트푸드 소비형태 중 외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가 높을수록 패스트푸드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Choi W, Choi JY, Yon HS. 2013. A study on purchasing characteristics on health functional beverage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J Hotel & Resor* 12:179-196
- Jo HY, Kim SA. 2005. Korean youths' use of fast food and family restaurants in different regions: a comparison among cities and rural towns. *Korea J Food Culture* 20:44-52
- Jung HS, Yoon HH. 2007. A study on the dining-out consumption pattern of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93-117
- Kim JY. 2008. Study on the effect of well-being lifestyle toward wine selection attributes. *Tourism Research* 26:19-34.
- Kim KH, Kim KM. 2010. A study on Chinese consumers' Korean food consumption behavior based on food-related lifestyle. *Food Distribution Research* 27:41-62.
- Kim KW, Shin EM, Moon EH. 2004.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nutritional knowledge, food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Diabetic Association* 10:13-24
- Kim MH, Lee YS. 2006. A study on the nutrient intake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in Chungnam area.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7:143-158
- Kim MJ, Jung HS, Yoon H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od-related lifestyle on undergraduates and the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 *K J Food Culture* 22:210-217
- Kim NR, Kim HJ. 2009. A Study on the consumption behaviors regarding red pepper paste according to the food-related lifestyles of housewive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1-8
- Kim SH, Kwon SM. 2007. The study on selection attributes and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HMR (Home Meal Replacement) customers' lifestyle. *J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5:16-30
- Kim SH. 2003. A study on labeling method for fast food and carbonated soft drinks. *Korea Food and Nutrition Foundation* 77-115
- Lee HW. 2010. Consumers attitude toward rice processed foods based on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Yonsei Univ. Seoul. Korea
- Lee JS. 2007. A comparative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classified by age in Busan. *Korea J Community Nutrition* 12:534-544
- Lee YG. 2007. A study on food purchase behavior according to wife's food 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Sungkyunkwan Univ. Seoul. Korea
- Lim GM. 2006. A study on the wine choice pattern by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Kyunghee Univ. Seoul. Korea
- Lim YM, Yoon HH. 2006. A study on the food-related lifestyle to wine selection attribution. *Tourism Research* 20:289-300
- Moon YS, Cho HS. 2012. A study on the green tea consumption behavior depending on the food-related lifestyle. *Life & Science* 15:79-98
- No SB, Shin YS. 2000.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Dietaty Culture* 15:287-293
- Oh SC, Jang JS. 2014. The effects of food-related lifestyle on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 Food Nutri* 27:1043-1050
- Oh YG, Kim KJ.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food-related lifestyle on coffee consumption behavior. *Asia-pacific J Business Venturing & Entrepreneurship* 7:65-75
- Seung HS. 2006. A study on the bakery markets consumption pattern by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Ewha Univ. Seoul. Korea
- Woon YE. 2010. A study on the specialty coffee shop selection attributes by the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Joongang Univ. Gyeonggi-do. Korea
- You DR, Park GS, Kim SY, Kim HH, Lee SJ. 2000.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Taegu and Kyungbuk.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27-40

Received 14 January, 2015
 Revised 13 February, 2015
 Accepted 18 February, 2015